

타격감 잡은 김도영, 수비로 자리잡기 나선다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타격감 잡은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수비'로 자리잡기에 나선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2023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KIA 김중국 감독은 야수진의 키플레이어로 김도영을 꼽았다. 김도영의 모습에 따라서 KIA 야수진의 틀이 달라질 올 시즌, 김도영은 캠프에서 자신감을 더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3년 만에 진행된 해외 캠프에서 김도영은 밝은 표정으로 코치·선배들의 노하우를 흡수하고 있다.

김도영은 "지난해 이맘때에는 형들이랑 안 친하기도 했고 긴장을 해서 목이 굳어있었다. 그래도 1군에 많이 있어서 형들하고 친해져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즐겁다"고 이야기했다.

공정의 자세로 보내고 있는 캠프, 일단 김도영의 방망이는 선배들도 인정했다. 타고난 방망이에 힘까지 더해지면서 김도영은 거침 없는 타격으로 선배들을 위협하고 있다. 변화도 있다.

김도영은 "팔을 나오기 편한 위치로 낮추다 보니까 스윙 나오는 것도 편하고 공도 잘 때려지는 느낌이다. 그 전에는 치기 전에 한 번 팔이 뒤로 빠지는 게 있어서 어깨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 타격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며 "코치님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 세계 안 쳐도 넘어갈 건 넘어간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 과학계 뒤로 안 당기려고 한다. 그

나만의 스텝 만들고 주루도 세밀 "기회 잡으려고 준비 잘하고 있다" 자신감 더하면서 경쟁에 불 붙여 김중국 감독도 키플레이어로 꼽아

런 게 많이 바뀌었다. 캠프 오기 전에 학교에서 티배팅 같은 것 하면서 연습했다면 캠프 와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비시즌에 타격을 잘 만들어온 김도영은 수비에 올인하고 있다. 자리 경쟁을 위해서는 수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즌을 통해서 느꼈다.

김도영은 "지난해 수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집중해서 진지하게 하고 있다"며 "키플레이 부분, 번트 포메이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3루수로는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수비에 집중하고 있다. 또 나만의 스텝을 만들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코치님께 도움 받고 있다. 스텝 같은 부분에서 공 받고 송구까지 이어진 동작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영은 수비 강화를 위해 박찬호를 따라다니면서 노하우를 묻고 있다.

김도영은 "찬호 형이 타고난 것도 있지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다. 찬호형이 공을 쉽게 던지니까 그런 송구 능력을 뱉어오고 싶다. 또 어떤 걸 바꾸니까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웃었다.

주루에는 세밀함을 더하고 있다.

김도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엑스트라 나 주루플레이 할 때 더 신경을 써서 코치님한테 많

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빠른 판단과 상황마다 플레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치열해진 경쟁 분위기가 부담스럽지는 않다. 팀은 물론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김도영은 경쟁을 즐기고 있다.

김도영은 "기회를 받는 게 우선적이긴 한데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기회를 잡으려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며 "부담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다. 홀가분한 느낌이다. 올해는 잘할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준비가 안 되면 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회를 위해 달리고 있는 김도영은 머릿속에 뜨거운 가을 시나리오도 작성해냈다.

김도영은 "올 시즌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고 어떤 목표보다는 올해 자리를 잡고 싶다. 올해는 잘해서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다"며 "또 포스트시즌에서도 너무 뛰고 싶다. 내 시나리오는 실수 없이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이다. 중요한 상황에서 타격 올리고, 도루하고 실수 없이 수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파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방도 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

김도영은 "그런 상황이 오면 올 것 같다. 슬픈 드라마, 영화 보면서 많이 온다. 눈물이 많은데 기쁜 순간에 울어본 적이 없다. 극적인 순간이 오면 작년 돌아보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다"며 "나를 작년이 힘든 시간이었다. 안 좋은 눈물이 아니라 올 시즌 감각의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웃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수비훈련을 하고 있다.

비·강풍에 연습경기 연기...대표팀 투구 일정은 그대로

24·25일 연속 KT와 평가전

이용찬 연투 가능성 테스트



때이닝 비와 강풍 탓에 연습 경기를 연기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대표팀이 투수들의 등판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 키노 베네딕투스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23일(한국시간) 열린 예정이던 야구대표팀과 프로야구 KT 위즈의 연습 경기는 폭우와 센 바람 때문에 취소됐다.

양 팀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와 몸을 풀다가 바람이 거세지자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다.

전날 소집 후 두 번째 휴일을 즐기고 이날 연습경기 취소로 사실상 하루를 더 쉬 대표팀은 24~25일에 연속으로 KT와 평가전을 벌여 페이스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WBC 4강 진출을 좌우할 호주와의 B조 본선 1라운드 첫 경기(3월 9일 정오·일본 도쿄 돔)가 14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표팀은 경기 취소에 따른 투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하기 보다는 예정대로 투구 일정을 강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대표팀의 베이스캠프인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와 대표팀 숙소에는 실내 불펜이 없어 투수들은 실외 불펜 또는 실전에서 투구 수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4일 경기에는 이날 등판할 예정이던 투수들이 그대로 마운드에 오른다.

고영표(KT)가 선발로 2이닝을 던지고 김광현(SSG 랜더스)이 배턴을 받아 2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킨다.



불펜 피칭을 하고 있는 투수 이용찬.

/연합뉴스

이후 양현종(KIA 타이거즈), 이용찬(NC 다이노스), 김원중(롯데 자이언츠), 구창모(NC), 고우석(LG 트윈스)이 1이닝씩 책임진다.

고영표와 김광현은 17일 NC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연습 경기에서 1이닝을 던졌다.

25일에는 광빈(두산 베이스)을 필두로 박세웅(롯데), 소형준(KT), 이용찬, 김윤식, 정우영(이상 LG)이 KT 타선에 맞선다.

광빈, 박세웅, 소형준은 20일 KIA와의 두 번째 연습 경기에서 차례로 등판해 구위를 점검했다.

24~25일 두 경기 연속 등판하는 이용찬은 WBC에서 연투 가능성을 테스트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투수가 한 경기에서 공 30개 이상을 던지면 하루를, 50개 이상을 뿌리면 나흘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이를 연투한 투수도 하루를 꼭 쉬는다고 한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민선 2기 첫 이사회...안병욱 사무처장 연임

안병욱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23일 도체육회관 1층에서 민선 2기 첫 이사회를 열고 안병욱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를 만장 일치 가결했다.

2021년 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선임된 안 처장은 민선 2기에도 사무처장직을 맡게됐다.

그는 "송진호 회장님과 함께 뜻을 같이해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민선 2기 전남체육회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전남도민을 위한 체육회로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도민안전실장을 역임했다.

새로 꾸려진 도체육회 민선 2기 집행부는 모두 70명으로 부회장 8명, 이사 61명이 선임되었으며 체육계 27명, 경제계 23, 의료계 1명, 행정계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이사회에서 신임 임원에게 선임장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송 회장은 "전남체육을 이끌어갈 중대한 자리를 수락해주셔서 고맙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송진호(왼쪽) 전남도체육회장이 23일 안병욱 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임해주시길 바라고, 전남체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노백신' 조코비치, 미국 대회 출전 위해 특별입국 허가 요청

올해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3월 미국에서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출전을 위한 특별 입국 허가를 요청했다.

AP통신은 23일 "조코비치가 미국 출입국 관리 당국에 특별 입국 허가를 요청했다"며 "조코비치는 3월 미국에서 열리는 BNP 파리바오픈과 마이애미오픈 출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코비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지난해 호주오픈과 US오픈에 출전하지 못했다.

올해 1월에 열린 호주오픈의 경우 호주가 외국인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규정을 완화해 조코비치가 대회에 참가해 우승까지 차지했다.

미국은 아직 외국인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현 규정대로라면 조코비치는 3월 BNP 파리바오픈, 마이애미오픈에 뛠 수 없다.

조코비치는 이날 ATP통신과 인터뷰에서 "두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내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2관	서치 2, 바다 탐험대 옥토포닉 육지수호 대작전: 열대우림을 지켜라!
3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4관	카운트
5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6관	서치 2
9관	카운트, TAR 타르, 교섭
7관 씨네커피	더 퍼스트 슬램덩크, 상견리, 메간
8관 씨네커피	에메이징 모리스, 영웅, 살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명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합창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